

편집 위원장 인사말

로슬린 러셀 (Roslyn Russell, PhD)



『국제저널 무형유산』의 이번 호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박물관 내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통합이 점차 증대하는 현상을 조망하는 두 편의 특별기고(VIEWPOINTS)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특별기고는 2024년 11월 12일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서 발표된 자키 안와르 누세이베(Zaki Anwar Nusseibeh)의 연설문입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문화고문이자 UAE 대학교 총장으로, 『무형유산과 박물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급격한 변화의 맥락』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연설은 먼저 아랍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무형유산이 갖는 중요성을 조명하고 아랍 정부 및 문화 분야에서 수행된 다양한 활동들을 개괄합니다. 그리고 무형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점에서 박물관들이 직면한 과제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특별기고는 배기동 교수의 『무형유산: 2004 ICOM 서울 & 2025 ICOM 두바이』입니다. 이 글은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가 핵심 주제인 2025년 ICOM 두바이 총회의 하위 주제와 관련되며, 그 중 특히 무형유산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자는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ICOM 총회의 무형유산 관련 논의를 재조명하고 지난 20년간의 주요 변화 과정을 추적하며 박물관 분야에서 무형유산의 변화하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합니다. 또한 『국제저널 무형유산』이 무형문화유산의 학문적 담론 형성에 기여한 바를 함께 논의합니다. 배기동 교수는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며, 2004년 ICOM 서울 총회를 주도했고 당시 총회의 주제 역시 무형문화유산이었습니다.

오창현(OH, Changhyun)의 논문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한국 내 법적·제도적 수용』은 2005년 이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에 대응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진 법적·제도적 변화 과정을 분석합니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해왔으며, 그 체계는 오랜 기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2024년에는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1962년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성을 검토하고 2005년 이후 법적·제도적 변화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2003년 협약의 개념을 기존 무형문화재 체계와 병행하여 수용하려는 노력의 결과임을 밝힙니다.

이어서 두 편의 논문은 축제, 기념의례와 같은 공공 행사를 중심으로 무형유산을 조명합니다. 조 부캐년(Jo Buchanan)의 『포트 엘리엇(Port Eliot) 축제: 창의성의 도가니』는 영국 콘월 지역의 유서 깊은 저택에서 매년 개최되는 현대적 축제인 포트 엘리엇 축제를 분석합니다.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융합된 이 축제는 무형문화유산의 표현과 공연의 통로를 마련하며, 이 문화적 공간에서 창의적인 실천자들이 수행하는 실험적 역할이 강조됩니다. 저자는 축제를 고정된 유산지와 달리 사회적이며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시간성은 ‘유산’의 가치가 불변한다는 전통적 인식에 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고 감각적이며 체화된 경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축제는(고대의 것이든, 부흥한 것이든, 현대의 것이든)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산 형성 행위의 핵심이 되는 능동적 가치 부여의 사회문화적 과정입니다.

드리셀다 P. 산체스-아기레(Driselda P. Sánchez-Aguirre), 에릭 올란도 히메네스 로사스(Eric Orlando Jiménez Rosas), 일리아 알바라도-시쑈(Illia Alvarado-Sizzo), 브루나 갈린두 모우리 페르난지스(Bruna Galindo Moury Fernandes)의 『멕시코 믹스킵(Mixquic) 공동체의 ‘망자의 날’의 유산적 가치와 관광화: 지역 아동의 관점에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멕시코의 망자의 날 기념의례를 지역 아동의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유산 연구는 무형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아동을 포함한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왔습니다. 이 논문은 사회 학습 이론과 환경적 관점을 바탕으로 멕시코시티 믹스킵 지역 아동들의 망자의 날 기념의례에 대한 집단적 관점을 그림과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사진 2).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엘 캄파네로와 같은 놀이 활동이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회 학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둘째, 아동들의 집단적

표상에서 제물이 망자의 날 기념의례의 중심 요소로 나타난다는 점, 셋째, 관광이 대체로 기념의례의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문화적 공간과 무형문화유산의 교차하는 이어지는 두 편의 논문에서 논의됩니다. 파티폰 욱수랑(Patiphol Yodsurang), 프라놈 탄수칸난(Pranom Tansukanan), 윗타야 두앙티마(Wittaya Duangthima), 피싯 시할라트(Phisith Sihalarth), 시티싸이 인시시엠마이(Sithixay Insiengmay), 야스후미 우에키타(Yasufumi Uekita), 마리에 나카무라(Marie Nakamura), 이쿠로 시미즈(Ikuro Shimizu)의 「**무형유산과 남라오스 강변 공동체의 영(靈) 정화의식**」은 팝(Pop, UəU)이라 불리는 문화적 과정을 통해 지역 정령과 자연 환경 간의 관계를 구축해온 토착 공동체의 실천을 고찰합니다. 이 논문은 라오스 남부의 메콩강 유역의 마을에서 행해지는 정화의식인 푸아-팝(Pua-Pop, UəUəU)에 주목합니다. 이 마을은 이전 공동체에서 추방되거나 혐의를 받은 이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며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공동의 영적 유대를 공유하는 다원적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화경관 조사 결과는 이 마을의 농경지 이용 방식, 생계 수단, 영과 자연의 역할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제공합니다. 이 논문은 특히 팝에 빙의된 이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푸아-팝 의식이 라오스 남부 메콩강 유역 공동체에서 전통적인 사회 관리 체계로 정착되는 양상을 조명합니다. 또한 이 의식이 메콩강, 초지, 습지 등과 같은 강 주변의 영적 경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니아 부스니나(Monia Bousnina)의 「**도시의 기억 공간유산: 세티프(Sétif)의 하맘 사압(Hammam Chiab) 사례 연구**」는 세티프 지역민들이 공간과 상호작용하고 인식하며 기억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전통 목욕탕인 하맘이 알제리에서 어떻게 물리적, 문화적 공간으로 기능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연구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지역민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도시 전역의 여러 위치에서 10명의 핵심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하맘이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적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을 탐색합니다. 연구 방법론은 공간 분석 기법과 감각 민족지를 결합하여 하맘이라는 장소를 구성하는 건축적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 실천, 구술 전통, 체화된 경험을 함께 기록합니다. 이 연구는 하맘이 단지 실용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지닌 정체성의 공간유산으로 세대 간 전승되는 관습과 전통을 통해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맘은 기능과 의미의 저장소이자 정체성, 문화, 역사의 매개체로 간주되며 도시 경계 내에서 '공간적 상징'이자 '기억의 지각적 공간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로크 인 로(Lok-yin Law)의 「**마을 전통에서 홍콩의 무형문화유산으로: 폭푸람(Pok Fu Lam) 지역 화룡무(火龍舞)의 유산화 과정**」은 홍콩의 폭푸람 화룡무의 전통과 유산화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특히 이 춤이 도시화의 위협, 정부 정책, 무형문화유산 지정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며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개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방식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은 기존 전통과 새로운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의 조정과 타협을 수반하며 그 결과 화룡무는 '탈마을화'와 '공연화'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폭푸람 화룡무는 기존 공동체를 넘어 새로운 공연의 맥락을 수용함으로써 홍콩의 공유된 문화자원으로 성공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도시 환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셰멜리스 테쇼메 세이옴(Shemelis Teshome Seyoum)은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토착 의례의 역할: 히다부 아보테 워레다(Hidabu Abote woreda) 오로모족(Oromo people)의 티스카(Tiska) 의례 실천 사례 연구**」에서 에티오피아 오로모족의 티스카 의례의 문화적 의미와 이 의례가 공동체 내 사회적 유대 형성 및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연구합니다. 오로모는 동아프리카의 주요 쿠시트 어족 공동체로, 에티오피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희생 의례는 개인, 가족, 씨족,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 연구는 티스카 의례가 지역 공동체 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티스카 의례는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통해 오로모 사람들 사이의 통합, 응집력,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구성원들이 공동의 전통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소통, 연대,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리민 카뭀(Limin Kamum)은 『무형유산을 통해 본 동히말라야 부족 사회의 사회적 변화 이해』에서 히말라야 지역 갈로(Galo)족의 의례가 축제로 전환되는 사회적 변화 과정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 변화를 추적하며 무형유산으로서의 모핀(Mopin)이 갈로 문화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이들의 생동하는 문화생활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본래 모핀은 가족 단위로 수행되는 의식이었으며, 닭 간 점술(chicken liver examination)을 통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에만 행해졌습니다. 모핀-핀툼(Mopin-Pintum) 의례는 농업 재해(기후 문제나 병충해로 인한 작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모핀은 점차 축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자는 모핀 신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히 축제로의 변화 과정을 넘어 초기 갈로 사회의 구조와 다양한 관습의 형성 과정을 조명합니다. 특히 벼의 발견, 농경의 시작, 혼인 관습의 발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통 사회 구조에 미친 영향을 고찰합니다.

사와로스 타나폰상수트(Sawaros Thanapornsanguth), 케나 리 엘더(Kenna Lee Edler), 박종휘(Jonghwi Park), 타카다 준이치(Jun-ichi Takada), 야마구치 시노부(Shinobu Yamaguchi)의 『무형문화유산 보존: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청년 주도 실천 공동체』는 실천 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 내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실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구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인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에서 수행되었으며, 청년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지역 무형유산 보존에 대한 위협 요소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공동체와 청년 간의 관계가 실천 공동체로서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구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상호참여, 공동과제, 공유된 레퍼토리, 공유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연구 결과는 청년 주도의 실천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청년들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며 전승자와의 협력적 학습에 참여하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들을 조명합니다.

음불리시 은들로부(Mbulisi Ndlovu)와 제이컵 마파라(Jacob Mapara)의 『하자 레젠프그웨(Hadza Lezembgwe): 칼랑가(Kalanga)의 미식적 무형문화유산 요소』는 칼랑가 공동체에서 하자 레젠프그웨(펼밀릿, pearl millet, 걸쭉한 죽)가 널리 선호되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이 음식의 정의와 특징을 설명하고, 일부 도시 식당들이 칼랑가족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이를 재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논의합니다. 이 논문은 이 중요한 무형문화유산 요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체가 이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짐바브웨 마타벨레랜드 남부(Matabeleland South) 주의 불릴리마(Bulilima)와 망웨(Mangwe) 두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펼밀릿을 그위사(gwisa, 펼밀릿 가루)와 세체(setje, 굵게 빻은 펼밀릿 쌀)로 가공하는 과정이 하자 제작의 핵심 요소임을 밝힙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전통 기술이 2003년 유네스코 협약에 부합하도록 기록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안드레아 트루히요(Andrea Trujillo)와 후안 디아스(Juan Díaz)의 『콜롬비아 카리브 지역 마림바 데 피에르나(marimba de pierna): 과수마(guazuma) 나무의 소리 보존하기』는 소멸 위기에 처한 전통 악기인 마림바 데 피에르나(leg marimba)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 악기의 사회적 기능, 기악학적 구조(organological structure),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마림바 데 피에르나는 콜롬비아 아틀란티코(Atlántico) 주 남부, 특히 산타 루시아(Santa Lucía) 시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타악기로, 토착 및 아프리카계 전통이 혼합된 형태의 악기이며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악기는 콜롬비아 카리브 지역의 여타 전통 악기들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전기 보급 이후 연주 빈도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여러 공동체의 전통문화 보존이 더욱 위협받고 있으며, 마림바 데 피에르나 역시 점차 연주되는 일이 드물어지고 소수 가문만이 제작과 연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 악기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닐 쉬바리(Anıl Süvaria)와 감제 초반(Gamze Çoban)의 『터키 남동부 전통 도시 조직 재료의 색채 매핑 연구: 하바라석(havara stone)을 중심으로』는 지역 내 역사 환경 복원 계획 과정에서 하바라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조사합니다. 하바라석은 2023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터키 동부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특징짓는 고유한 색을 지닌 문화유산 재료로, 그 색채는 지역 전통 건축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 논문은 하바라석의 사용에서 실제 적용된 색과 그 비율을 조사하고자 수행된 연구에 따라 '아포스틀석(apostle stone)' 샘플을 기반으로 컴퓨터 보조 색채 매핑 기법에 따라 통합된 색상 차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색채 차트는 향후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질 복원 및 재활용 개입 과정에서 색채 선택을 위한 준거 틀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복원 작업의 진정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지역 고유의 건축 양식과 역사적 구조가 유지된 역사적인 환경을 보존하는 데 이 색채 매핑 기법이 표준적 접근 방식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호의 마지막에는 세 편의 서평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전 브레이버리(Suzanne Bravery)는 타마라 니콜리치 제리치(Tamara Nikolić Đerić), 요레인 네이린크(Jorijn Neyrinck), 에벨린 세허스(Eveline Seghers), 에브도키아 차키리디스(Evdokia Tsakiridis)의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을 논평하고, 함한희(Hahm Hanhee) 교수는 아그니에슈카 파우웍프스카-메인빌(Agnieszka Pawłowska-Mainville)의 『살아있는 유산의 문화경관』을 논평하고, 정성미(Jeong Seongmi) 교수는 지트카 치르클로바(Jitka Cirklová), 바츨라프 리슈카(Václav Liška)의 『시간을 잇는 전통』을 논평합니다.

『국제저널 무형유산』은 많은 분들의 헌신과 협력으로 출간됩니다. 전문성으로 성실하고 신중하게 많은 논문들을 심사해 주신 편집위원회 위원과 외부 심사위원, 로빈 플레밍(Robyn Fleming)의 정교한 교정교열, 사무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장상훈 관장과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신 논문의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로슬린 러셀

「국제저널 무형유산」 편집 위원장

